

전북대, 2018학년도 입학전형 확정·발표

수시모집 비율 현행 51.4%~63%로 늘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수시모집을 대폭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학년도 입학전형형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그간 정시와 학생부교과전형으로만 선발했던 의·치의예과와 간호학과, 수의예과 역시 2018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북대가 확정·발표한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르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 등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비율을 현행 51.4%에서 2018학년도에는 63%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도 2018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인 '큰사람전형'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의예과 3명, 치의예과 2명, 간호학과 5명, 수의예과 2명을 '큰사람전형'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교 재학 기간의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분야가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1단계 평가기준에 반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해오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의·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의 큰사람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과 수학 영어 과학, 소프트웨어 등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청년정책포럼단 발대식 전북도가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들의 도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2기 청년정책포럼을 구성, '전북도의 꿈을 향한 청년의 열정,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전주 리투체에서 송하진도지사(왼)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교사, 자영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발대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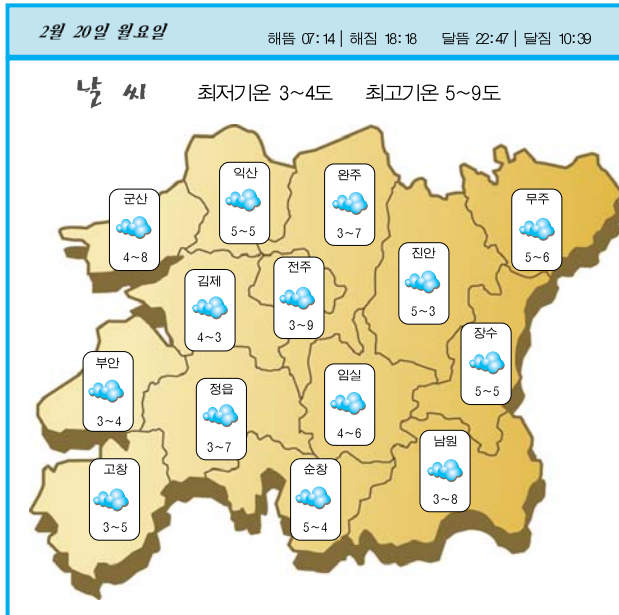
창의적 재능이 있거나 진취적이고 모험적 활동이 있는 학생들을 '모험·창의인재전형'으로 8명 선발한다.

언어적 소질이 있거나 글로벌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한다.

여중문 전북대 입학부장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도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수의예과를 진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교교육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수시모집 비율을 늘리고, 모험·창의인

재전형 등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게 된 것 역시 창의적 소질이 있는 인재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은기자



도교육청, 전북교육아카데미 '심심한 초대' 일정 확정·안내

전라북도교육청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전북교육아카데미 심심한 초대 일정을 확정하고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공동체역사 회복과 역사인식 고취 등 학부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1회의 전북교육아카데미를 2층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총 10회가 열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첫 번째 강의로 3월 20일(월) 오후 7시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를 초청해 '과학으로 찾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4월 20일 황상민 소장 5월 25일 조영태 교수 6월 22일 강원국 비서관이 전북교육청을 찾는다.

한기 7월 최유준 교수 8월 최윤규 작가, 9월 정희진 박사, 10월 박재동 화백, 11월 강명관 교수, 12월 문경수 탐험가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참석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혜은기자

청년 상상놀이터 활성화로 청년창업도시 기반 닦는다

전주시, '예비 청년창업가 네트워킹 파티' 개최

전주시가 청년들이 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 상상놀이터 활성화로 청년창업도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17일 병무청 오거래에 위치한 청년 공동창업지원실에서 청년 창업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예비 청년창업가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는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상호 교류와 공간대 형성 등을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작정하고 친해지기'를 주제로 열린 첫 파티에서는 청년 창업가 6명의

100초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관계·기업설명활동)스피치, 그룹별 모의투자 투자금 유치를 위한 최종발안 등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가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모의투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시는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 구현 등 창업초기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고 창업자가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테일 스탠딩과 클럽DJ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청년 상상놀이터 공동창업지원실에 입주하게 될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와 관련, 시는 비슷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청년창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상상놀이터 공간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등 청년 창업도시 인프라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청년 일자리(창업)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청년들이 성공창업과 취업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사

무기기 등 공동사무요소를 갖춘 공동창업지원실을 개소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간 '우개'와 협약을 맺어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회의와 모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활동공간 '비밀'을 개소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부장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창작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적극 지원해 청년 창업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상호소통 및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청년경제를 키울 것이다"면서 "성공 청년창업자를 꾸준히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경제를 키워 일자리로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호주 브리즈번서 진행

중학교 2학년 70명 대상 7월 24일~8월 13일까지

중학생 해외영어캠프가 7월부터 3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된다.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실생활 영어사용 경험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성숙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여름방학 중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어캠프에는 중학교 2학년 70명을 대상으로 하며 7월 24일에서

8월 13일까지 3주 동안 호주 브리즈번 소재 중등학교 2곳에서 오전에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에 참여하며, 오후 및 주말에는 체육, 예술, 문화 체험 등 활동 중심의 영어캠프활동을 하게 된다.

70명의 50%인 35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정혜은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